

“나의 세계가 있다”, 고로 장애물이 없다

- 공자가 끊임없이 좌절하고 조롱당하고 오해받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만의 즐거움을 잃지 않았던 것은 세상을 초월해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. 그 세계에서는 자신의 주인이므로 속세의 영욕과 빈부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영혼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었다. 자기만의 세계에서 진정한 안락함을 느꼈으므로 시간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, 그래서 나이든 노화든 그에게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다.
- 우리 자신에게 진정으로 속해 있는 것을 찾고 나면 집중할 수 있고,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다.

물두할 수 있는 취미가 생활의 고단함을 견디게 한다.
신앙이나 추구하는 가치가 생활의 공허함을 초월하게 한다.
자신에게 진정으로 속해 있는 것을 찾아 집중하면,
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다.